

완주 천호성지 '주목'

22일~24일까지 세계종교문화축제 열려 '이웃종교돌아보기-천호-여산' 걷기 진행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기간 동안 전북의 아름다운 순례길인 완주군 '천호성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열리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웃종교돌아보기-천호-여산' 걷기가 진행된다.

병인박해 순교 15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천호성지와 성인묘역 및 성지 곳곳을 순례할 수 있다.

천주교 천호성지에는 병인박해 등으로 순교한 성인들이 안장돼 있다. 특히 천호산 기슭에 형성됐던 박해시대 교우촌의 옛 터와 주변 환경이 손상되지 않고 보존돼 있어 그 시대 교우촌의 입지적 특성을 보여주는 교

육장으로서도 가치 있는 공간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10만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찾는 천호성지는 울창한 산세를 지녀 아름다운 도보 순례길로 추천받을 만큼 산책코스도 손색이 없다"며 "4대 종교가 화합하는 이번 세계종교문화축제에서 완주군의 아름다운 순례길이 종교를 뛰어 넘어 일 반인들도 힐링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세계종교문화축제는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열리며,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화합과 상생을 함께하는 축제로 각 종교에서 성물, 공연,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민원은 줄이고 편익은 키우고'

무주군, 도로명주소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3년차를 맞아 무주군이 무료로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등기촉탁서비스는 토지등기부등기 명의인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을 신청해 주는 것으로, 관련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은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를 일제 조사한 후 도로명

주소로 등기가 안 된 토지(임야)대장을 발췌, 주소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서를 무료로 작성해 무주 등기소에 신청한다.

등기촉탁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해 군이 소유자를 대신하며 1주일 후에 등기필증을 찾아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 증대는 물론 재산권 행사와 토지소유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 민원봉사과 김연홍 토지관리 담당

담당 "총 15만 1950필지 중 토지 대장 소유자와 주민등록 자료를 대조한 결과 1만여 필지가 등기부상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되었지만 그동안 토지등기부의 등기명의인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안 돼 불편이 따랐던 만큼 연차적으로 목표량을 정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무료 변경 등기촉탁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서는 무주군청 민원봉사과(063-320-2476)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서는 19일 무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렴동아리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무주경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시외버스터미널서 캠페인 펼쳐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19일 무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렴동아리회원 등 20여명 참석하 가운데 직원 및 무위반 근절 캠페인과 공익신고,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홍보하는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했다.

권익위에서는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90일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신고대상은 연구개발,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축·임·수산업,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

원금, 환경분야보조금)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최성규 서장은 "정부돈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공공재정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감시자 역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세계 차 없는 날' 맞아 친환경 교통주간 설정

22일,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

진안군은 '세계 차 없는 날'(매년 9월 22일)을 맞아 저탄소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환경교통주간'을 19일부터 23일까지 설정하고 운영에 나섰다.

특히 22일은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로 정하고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대중교통·자전거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캠페인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펼쳐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교통주간 동안 군민들도 생활속에서 친환경 교통을 실천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세계 차 없는 날'은 승용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취지로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 '라로셰'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마세요!"라는 시민운동 시작으로 200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차 없는 날' 캠페인을 시

작하여, 2008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확대 추진 중이고, 현재 전 세계 47개국 2,000여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승용차 부분은 2013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배출전망치) 대비 34.3%감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읍 물곡리 미술관 개관

김권희 화백 미공개 작품 41점 전시



전북의 대표적 한국화가 청산 김권희(사진) 화백이 미술 오지인 진안에 미술관을 열어 군민 문화예술 향유에 나섰다.

진안읍 물곡리(국도 26호, 구 월천주유소)에 동지를 둔 김 화백은 오는 22일 개관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41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관 개관을 계기로 그의 왕성한 작품 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미술관 개관과 관련, 과거 지역 연고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과 관련해 종종 행정적 지원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 공헌만을 추구하는 김 화백의 순수성에 대해 지역민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김 화백은 "20여 년 동안 제2의 고향인 진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뭣까 고민하다 작은 재능이라도 나누고 싶어 미술관 개관을 서두르게 됐다"며 "군민은 물론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이 공유하면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논리에 떠밀려 순수 미술이 소외 시 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창작의 근간이 순수미술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전문적 지식이나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환경을 만들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미술관은 연면적 266㎡로서 1층은 할밀하우스를, 2층은 전시관으로 꾸며졌으며, 개장 시간(잠정)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한편 김 화백은 비구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기법을 구사해 한국화의 새 장을 열었고, 그의 비구상 작품들은 현대의 각박한 생활을 벗어난 자연 회귀를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1분과위원장과 대통령 기록화 심사위원직을 맡고 있으며, 2013년 대한민국 예술인의 날 정예작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서의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유해야생동물 포획 순환수렵장 지정

사용료 26일부터 입금 받아

완주군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수렵장 운영을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순환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502.03km이며, 수렵 모집인원은 800명이다.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수꿩, 까치 등 야생동물 16종이다.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군은 수렵장 사용료를 오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입금 받는다.

신청자는 사용료를 먼저 입금한 뒤 포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

출하면 되고, 포획승인신청이 끝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 10월 21일까지 수렵 총기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수렵활동을 할 때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참여를 원하는 수렵인은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야생생물관리협회로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http://www.wanju.go.kr>) 및 야생생물관리협회(<http://www.kowaps.or.kr>)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LH 전북본부, 지역개발 협약 체결

진안군은 19일 이항로 군수, 서기식 LH 전북지역본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군청 상황실에서 체결했다.

이항로 군수는 "이항 협약을 통한 진안군의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지역특화 및 수요 맞춤형의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지역 성장관리 및 발전방안 수립, 진안군과 LH가 공동으로 발굴한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단계별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LH와 공동으로 지역발전의 위를 지역의 잠재력을 발

굴하여 지역특화 및 수요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진안고원 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협약이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진안군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향후 진안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진안군과 LH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변화하는 시기에 맞추어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시범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파출소, 자살의심자 공조수사로 '가족 품으로'

장수파출소에서는 명절 아침부터 자살의심자를 구조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훈훈한 명절을 맞이했다.

진안 거주 김모씨가 '이 세상이 살기 싫다'라는 자살 암시 글을 써놓고 나가 명절 전날부터 연락도 두절되어 불안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위치추적, CCTV 검색 및 발품을 팔아가며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수색을 했지만 발견되지 못했다.

근질긴 탐문과 수색으로 자살의심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숙박 가능 지역을 탐문하던 중 자살의심자를 발견, 가족의 품으로 인계해 자살의심자의 가족과 경찰관 모두 뜻 깊은 명절 아침을 보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장수군은 2016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4,689건 1억1,914만6,010원을 납부 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에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대상자는 부과기간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소유권변경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로 이날 말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은행 CD/ATM기 또는 읍면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063-350-2332/2513)나 해당 읍면 환경업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환경부장관상' 수상

장수군이 '제7회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에서 전라북도 최초로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건설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천연자원 고갈위기 극복 및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인식제고를 위한 자이다.

장수군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활용실적 및 사용에 대한 과감성과 효과성을 평가에서 하수관거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순환골재를 보조기층에 대해 재사용함으로써 2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순환골재 사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GAP 선도농업인

리더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완주군은 지역 내 GAP 확산을 주도할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GAP 선도농업인 리더양성 고급반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GAP란 정부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인증을 위해 2006년부터 도입했으며, 농산물의 생산·수확·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GAP 기본교육 이수 및 농산물 안전의 필요성을 공감한 농업인으로 GAP 농산물 소비트렌드 및 집단인증단체 관리기법 등 심화교육을 10월 12일과 13일, 26일과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2일까지 완주군청 농업농촌식품과(263-3223)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경찰서 구천파출소

버섯 채취 80대女 구조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구천파출소(소장 김운곤)는 최근 설천면 덕유산으로 버섯 채취를 위해 주모(80, 여)씨가 산속에서 사라졌다는 112신고와 접하고 산악수색 약 2시간여 만에 산속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시켜 뒤 회계가 되고 있다.

사고당일 비가 내리고 일몰시간을 고려, 산악수색을 코스별로 구분하여 경찰서, 119산악구조대, 국립공원, 지리적 상황이 밝은 주민들과 합동으로 수색 중 덕유산 고수봉(1,263m) 정상에서 길을 잃은 주씨를 발견했다.

김운곤 파출소장은 "일반적인 등산과 달리 인산불 채취는 길에서 벗어나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조난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소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